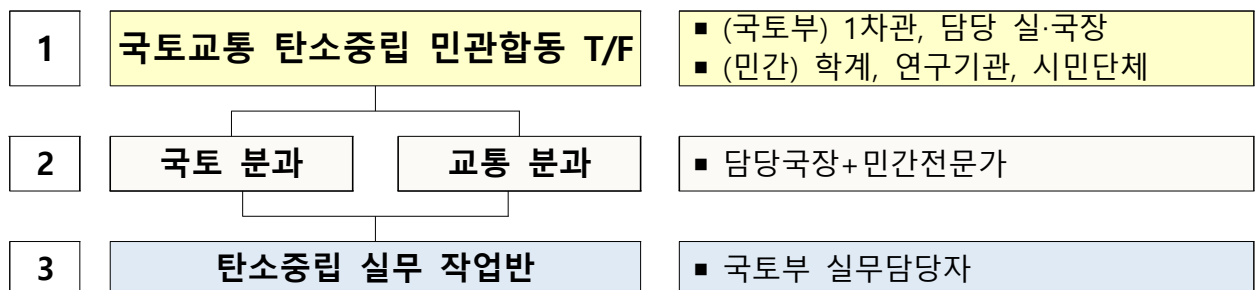
 국토교통부	보 도 자 료		
	배포일시	2021. 2. 8.(월) / 총 2매	
담당 부서 미래전략일자리 담당관	담당자	• 과장 정진훈, 사무관 노지훈, 사무관 오은숙 • ☎ (044) 201-3258, 4735, 3255	
보 도 일 시	2021년 2월 9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2. 8.(월) 16:00 이후 보도 가능		

'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', 민관이 함께 만든다

- 2.8(월) 민관합동 T/F 출범, 연내 로드맵 수립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 기대 -

- 국토교통부(장관 변창흠)는 2.8일 윤성원 제1차관 주재로 국토교통 탄소중립 민간합동 전담조직(T/F) 1차 회의를 개최하여, 국토교통 부문(건물, 수송) 로드맵 수립과 관련한 일정을 점검하고 추진전략을 논의하였다.
 - 이번 회의는 '20.12.7일 공개된 범부처 '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'의 후속 조치이며, 올해 말에 발표 예정인 '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' 수립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.
- 국토교통부는 혁신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하여 ① 민관합동 T/F, ② 2개의 분과(국토, 교통), ③ 실무 작업반 등 3단계 추진체계를 구축하였으며,
 - 이 중, 민관합동 T/F는 국토부, 학계, 연구기관,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, 탄소중립 로드맵의 거시적인 추진방향을 정하고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제안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맡는다.



- 민간 전문가들은 이날 T/F 회의에서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이 매우 도전적인 과제임에 공감하면서, 각 전문 분야 별로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제안하고 해외 사례 등을 소개하였다.
 - 건물 부문에서는 국토·도시계획부터 탄소중립 요소를 반영하고,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을 자발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국가 건물 에너지성능진단 플랫폼 및 탄소배출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.
 - 수송 부문에서는 광역철도 등 수요 맞춤형 대중교통시스템, 전기·수소차 전환을 유도하는 실효성 있는 체계 구축, 물류 인프라 전반에 걸쳐 대규모 관련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.
- 윤성원 제1차관은 “국토부가 주관하는 건물·수송 부문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1/3 이상으로 그 비중이 높고, 국민들의 일상과 깊게 연관되어 있어 혁신적인 감축수단 발굴이 필요하다.”라면서,
 - “건물부터 마을과 도시, 나아가 국토 전체를 아우르고, 상용차부터 철도·항공 등 대중교통까지 탄소중립의 정신을 반영할 수 있도록 민관합동 T/F가 추진과제를 적극 제안해 달라.”라고 당부하였다.
- 국토교통부는 민관합동 T/F 및 분과회의 등을 통해 외부전문가의 창의적인 의견을 수렴하고, 관련 연구용역 결과 등을 종합하여 연내에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·발표할 계획이다.